

영월화력 발전기 폭발

김 방 규 | 전 선도전기(주)사장

70년대 중반 절대적인 발전량 부족상태에서 영월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한 것이었다. 이런 중요한 발전소에 사고가 났다. 일시중지가 아니고 발전기가 폭발한 것이다. 그 폭음이 얼마나 컸던지 1급 보안지역으로 높은 담장위에 이중철조망까지 쳐진 담을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직원이 순식간에 뛰어 넘었다든가? 가히 초인적인 순발력이라 하겠다. 믿거나 말거나 조사반이 나가고 조사결과 송전선이 트립되고 무부하에서 가바나가 작동하지 않아 대형사고로 발전했는데 가바나 스위치 고장은 한달 전에 보고된 건이고 보고받은 본사에서는 한달후면 오바홀 계획이 있는데 그때 처리기로 보류했던 것이다. 그 몇일을 못참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정작 사고발생 원인은 찾지 못했다.

송전선 트립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 탓으로만 생각했고 송변전부는 행여 불똥이 튈까 은폐하고 쉬쉬한 것도 한몫을 한 것이리라.

그런데 이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는 것이다. 즉 영동화력 준공과 더불어 착공한 영동 T/L 1회선 증설공사였다. 1회선 증설을 위해 롱스판에는 하중을 고려, 간주를 중간에 세우는데 4월 오바홀기간에 선로 가선을 하기 위해 미리 기초공사를 하게 되었고 휴전기간의 공사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준비공사를 계획보다 더해 놓기 위해 기설 송전선 반대쪽인 증설예정측 철구를 한단 더 조립한 것이 문제였다.

해동되면서 덩이 처지고 봄철 대관령에 불어닥친 강풍이 가세하여 철구에 근접하여 순간 접지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조립직후부터 몇차례 발생했었다. 첫 번은 영동고속도로 착공식에서 김종필 총리가 강릉 식당에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정전하여 엉망이 되었다. 북한까지 염두에 두고 생방 송중이었는데 전기가 나갔으니 중앙정보부에서 조사하고 154송전선사고는 싹빼고 삼척 화력 원유공급이 원활치 않아 발생한 사고로 얼버무렸다든가?

한편 본사 지시로 선로 순시를 하였으나 워낙 험난한 산길에 눈이 쌓여 포기 상태였다. 그러나 본사에서 직접 조사하겠다고 하니, 자존심에도 문제가 되니 다시 정밀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공부서인 건설사무소에서는 사고지점을 알고 있었지만 자칫 확대될 것을 염려, 은밀히 시공업자를 불러 그

부분의 철거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 작업인부가 밧줄을 메고 현장에 도착, 철탑을 잡고 땅을 닦는 순간 강풍에 선로가 근접, 섬광과 동시에 감전사했다. 마침 강릉지점 조사팀이 산정까지 와서 사고지점을 내려보고 있을 때였다. 깜짝 놀란 조사팀은 혼미백산 도망갔고 못본걸로 하고 건설사무소에 통보 사고 수습과 동시에 철거하여 이 사건은 은폐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건설사무소에서는 방치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당시 건설사무소 책임 간부의 아집과 편견이 작용했다고 할까. 자신이 출장을 가면 황제 접대를 받는데 감동한 나머지 부하간부가 혹시 이런 접대 받지 않을까 걱정해 “현장에는 감독이 있는데 간부들이 왜 출장가는가?” 라고 과·계장의 출장을 금지시켰다. 해서 자신만이 열심히 현장나들이를 했지만 이 현장은 눈이 쌓여 가지도 못하고 중도에서 쉬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애초 현장파악할 생각도 없었고, 봐도 모를 것이니 수하는 발뚱어놓고 이런 행태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끼쳤는가? 은폐하는데 급급했지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다행히 실무 간부가 도상으로 파악, 사고원인을 제거하고 나름대로 수습하였던 것이다.

재밌는 후일담.

시공업체에서 철탑감전사한 것을 관할 경찰에 신고하니까 “사망자 몇이지요?”, “한명입니다”, “그까짓 한명 죽은걸 갖고 허둥대시요?”, “?”

강원도 산중의 안전사고라 안전사고에 면역된 도시하고 틀리게 대응할 것을 염려하고 갔는데 “그까짓 한명”가지고 라고 하니...? 뒤에 알고보니 강원도에 흔히 발생하는 탄광 안전사고가 두자리수로 발생하니 오히려 강원도가 더 면역되었다는 이야기.